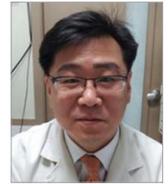


이 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

13회 - 내가 하는 스켈링과 폴리싱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것일까? (2편 스켈링시 일어나는 문제점)



이 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6세령 말티즈 여아입니다. 이사가셔서 2년정도 연락없으시다가 스켈링으로 내원 하셨습니다. 이사가신곳 동물병원서 스켈링후 너무 아파 해서(한 5일정도 밥도 안먹고 아파하며 고생하였다)고 아프지 않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104번 치아의 변색이 확인되었고 물어보고 그때 스켈링 이후 로 그런것 같다고 하시네요. 치수염에 의한 치아변색으로 사료되는데 치료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A. 우선 치아의 변색과 스켈링이 무슨관계일까라고 생각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습니다.

위의 질문하신 케이스는 우리가 잘못된 스켈링방법에 의 해서 치수염이 걸린 케이스입니다.

먼저호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스켈링방법에 대 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잘못된 스켈링 방법을 원장님 들과 하나씩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ngulation(각도)

우리가 스켈링을 할 때 스켈러와 치아와의 Angulation(각도)를 생각하면서 스켈링을 하는 원장님들은 아마도 극소수 일거라 생각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치석을 제거

하기 쉬운 Angulation(각도)은 3번 그림일것입니다.

1번 : 0도
Insert angulation



2번 : 1-45도
Closed angulation



3번 : 45-90도
Calculus remove



4번 : 90도이상
Open an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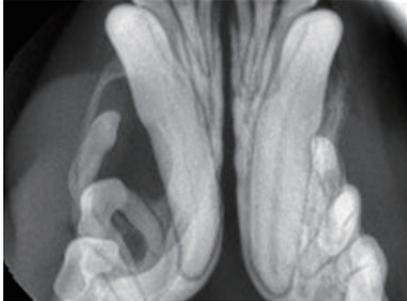
2. Stroke

우리가 스켈링을 할 때 스켈러를 어떤방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4가지 stroke로 나누어 집니다.



A. Circular B. Oblique C. Horizontal D. Vertical

아래와 같은 Vertical stroke는 주로 앞니와 송곳니의 스켈링과 큰어금니, 작은어금니의 인접면을 스켈링할 때 사용되는 stroke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은 Obilique stroke 작은어금니와 큰어금니 혀쪽이나 볼쪽면의 스켈링에 사용되는 stroke방법입니다



아울러 Stroke를 할 때 힘주는것도 Pull stroke(당길 때 힘주는 것), Push stroke(밀 때 힘주는 것), Pull&Push stroke(밀고 당길 때 모두 힘주는 것)으로 3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마치 톱질할 때 곁에따라서 밀 때 혹은 당길 때 힘주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3. Position(스켈링시 위치)

아래는 우리가 스켈링시 흔히 취하는 자세입니다. 환측은 아래와같이 위치하고, 술자는 스켈러를 가지고 상악과 하악을 움직이지 않고 한자세로 스텔링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아래와같은 방법이 올바른방법입니다.

환측을 놓고, 상악을 스켈링할 때는 술자가 환측의 머리 위로 위치하고, 하악을 스켈링할때는 환측의 정면을 마주하고, 즉 환측은 그대로 위치한채 술자가 상악과 하악을 스켈링 할 때마다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합니다.

상악스켈링시 술자의위치



하악스켈링시 술자의자세



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4. 스켈링시 잘못된 방법들

4-1. 개구기를 사용하지 말자

우리는 스켈링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아래와같이 개구기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치과 시술을 하다보면 스켈링외에도 다른 시술을 하다보면 심지어 3-4시간도 마취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계속 개구기를 사용하다보면 TMJ에 무리가 가게되어서 나중에 턱에 손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3-4시간씩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치과에서도 어쩔수없을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개구기를 사용하지 3-4시간씩 개구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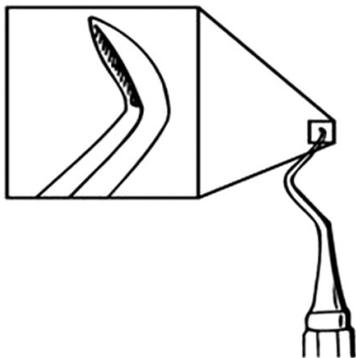
치과가서 스켈링을 받으실 때 치과에서 개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진신마취를 하므로 오히려 사람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과시술을 하게되는데, 굳이 개구기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것입니다.

4-2. 스켈러 팁끝을 사용하지 말자

스켈러를 사용시에 우리는 흔히 팁끝을 90도로 세워서 스켈링을 하는데, 이것은 초음파에 의해서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팁의 옆면을 사용해서 스켈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3. 한치아에 최대한 15초이상 스켈링을 하지말자

아래의 사진을 보면 4전구치의 치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4전구치의 치석이 없어질때까지, 한 개의 치아를 가지고 완전히 치석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한치아만 열심히 스켈링을 하는데, 이 경우 초음파에 의하여 치아가 손상이 갑니다. 아래와같이 4전구치의 치석이 많더라도, 한 개의 치아에 15초 스켈링을 하고, 옆의 3전구치 15초 스켈링하고, 다시 4전구치를 와서 스켈링15초하고 다시 3전구치15초순으로, 한 개의 치아에 치석이 많다하더라도 15초이상 넘어가면 초음파로 인해서 치아에 무리가 가므로 절대 15초를 넘기지 말아야합니다.



치석이 많으면 인접치아를 15초하고, 다시 원래의 치아에 15초, 다시 인접치아 15초순으로 스켈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4-4 치은(잇몸)에 스켈러가 다오면 안됩니다.

원장님들이 스켈링을 하다가 스켈러를 원장님 팔목에 갖다 대어 보세요..

아마도 뜨거워서 깜짝 놀랄것입니다. 스켈러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뜨겁기 때문에 물이 냉각수역확을 하는것입니다. 그만큼 뜨거운데, 이 뜨거운 스켈러를 치은에 갖다 댈다면 아마도 화상을 입겠죠?

위의 3번Position(스켈링시 위치)를 보면은 스켈링시 스켈러는 치은면에서 치관부로 향하는 이유도 가능한 치은면에 스켈러가 닿지 않도록하기 위함입니다.



4-5. 위치에 따라 스켈러 물의양, 파워, 스켈링속도, 팁의 두께를 결정하자

치은위 스켈링과 치은아래 스켈링에 대해서는 먼저호에 기술을 한 것을 아래표에 요약을 하였습니다.

아래표대로 치은위의 스켈링인가 치은아래스켈링인가에 따라 스켈러 물의양, 파워, 스켈링속도, 팁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Supragingival	Subgingival
Tip	Thick	Thin
Power	High	Low
Water	High	Low
Speed	Quickly	Very Quickly

4-6. 스킨러는 힘있게 잡지말자

스킨러를 잡을때는 온힘을 다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짝 잡고서 스킨링을 하여야합니다.

세게 잡으면 잡는만큼 스킨러에 힘이 들어가므로 그만큼 치아에 닿을 때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면 초음파에 의하여 치아가 손상이 되므로 스킨러는 가능한 가볍게 잡아야합니다.

골프든 모든 운동이 초보자일수록 온힘을 다해서 채를 잡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 듯이, 스킨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스킨링을 한후에 치아의 색이 변색되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치아의 색이 변하면 치수염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치수염에 걸리게 되면 아래 그림과같이 처음에는 핑크색으로 변하고, 치수가 괴사되기 시작하면 보라색-노란색으로 색이 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치수가 괴사가 되면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흰 색



즉,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경우는 치아의 색을 언급 안하셨는데, 사진상으로 보아서는 노란색이나 회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치수가 괴사가 진행중이거나 괴사가 되었기 때문에,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신경치료를 하여야하거나 발치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치수염초기,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치아의 색이 핑크색 일경우는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항생제는 아목시실린계통의 항생제와 소염제로는

비스테로이드계통의 소염제인 프레비코스, 리마딜, 메타캠을 조합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수염치료 전



치수염치료 후

위의 4번에서 스킨링시 잘못된점에 대해서 나온대로, 아마도 전에 스킨링을 한병원에서 스킨링시 스킨러의 초음파에 의해서 치수가 데미지를 받아서 치수염이 온케이스입니다.

4월호에서는 큐렛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외과의 상장이 메스이고, 치과의 상장이 큐렛인데,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치과를 분명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큐렛이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이에 큐렛을 사용해야하는 이유, 종류, 사용법에 대해서 다루겠고, 5월호에서는 스킨링기기의 종류, 방식 및 종합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